

[2019-04-28] 주일 말씀 녹취록

제목 : 성령의 열매

말씀 : 강만석 목사님

본문 : 갈 5:16-26

-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찌니
26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찌니라

크리스찬이란 누군가? 복음의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구원자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요, 구원자라고 고백이 구체적으로 무슨 무엇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이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백에 아주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축복 하시면서 그리고 이전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스스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예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끔 되었으니 그때로부터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당치도 않다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갑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국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정색을 하고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를 가르쳐 “사단아” 하셨습니다 어째서 그 귀한 신앙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하였지만 그러나 입으로 한 고백만으로 이렇게 사단아 하고 불릴 수도 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입으로 고백만으로 우리는 같은 처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참으로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조건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못 할 땐 누구든지 사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말씀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주님 자신을 지칭하는 '나'가 한번 나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나가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발견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고백에서 무엇이 문제 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아닌 나를 부인 하지도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려면은 나를 비워야만이 보고 쉽게 전해질 것입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복음은 내것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서 부인 한다는 것은 인정 한다는 것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나의 그 어떤 것도 인정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의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갈등이 있을 뿐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되면서 복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되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었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 한다면 현상이 장악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서 복음 속에 누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에 연결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바른 응답일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물 이란 말이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소속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내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소유요. 둘째는 능력이요. 셋째는 소속입니다 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리고 보면 그 중에서도 소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소속이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면 김 씨 집안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박씨면 박씨 가문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가문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게 되는 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사람은 더 중요한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소속도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속은 최후 심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때까지 통하는 소속입니다 그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속이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그의 소속에 따라 평가가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임종하게 되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공로를 내놓을 것입니까? 나의 업적을 내놓을 것입니까? 우리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이것 밖에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소속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분명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모두 다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란 나라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나라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시합을 하면 우리는 한국을 위해 응원하고 그 시합이 꼭 우리 대한민국의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속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자라 하는 소속감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소속앞에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다 소용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원칙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있어서 옛 사람은 사실 죽은 것입니다 옛날에 속하였던 이러한 관계를 다 끊어낸 사람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옛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옛 것은 이미 십자가이다 못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십자가로 할 때 무엇을 십자가라고 말할까요? 여기 십자가라고 할 때 몇 가지 원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는 선택적인 것이고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도망할 수 있습니다 침묵과 변명 없이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말 안듣고 너무 힘드니까 좀 고생이 되니까 자식을 십자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싸구려 십자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못하여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시달리다가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못해 지는 것입니다 도망갈 수 없어 억지로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피할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안질수도 있는 것을 내가 자원하고 선택해서 기꺼이 질 때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고 다 십자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적인 의미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는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물었을 때 그 의미가 자신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복음전파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추수의 날을 고대하면서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에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럴때도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특별한 뜻도 없는데 어찌다가 잘못해서 지게 되는 고통을 가리켜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기억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이고 가치도 없고 효용도 없습니다 물론 매력도 없습니다 시체에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또한 관심도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미라로 만들어 썩지 않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안 죽기는 왜 안 죽습니까 왕의 죽음이든 거지의 죽음이든 죽음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시체가 미라로 만들어 북한 사람들이 보고 경배를 하도록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데만 한 달에 한 30만불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북한의 기술이 부족하여서 러시아 기술자들이 와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데 매달 드는 비용이 30만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 러시아에 매달 관리비를 못 줘서 더 이상 러시아가 관리를 안 해주어서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나라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라가 시체가 뭐라고 연연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썩지 않기 위해서 냄새 난다고 하니깐 다시 그걸 관리 하려고 많은 돈을 더 들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경배 해도 시체는 시체입니다. 죽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원칙이 있듯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십자가에 죽음은 능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동적이나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지금 숨을 쉬고 있어도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유명한 신앙고백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히 죽어야만 자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법적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이미 타락한 몸이며 잘못된 심령이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는 분명 내가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서 그분을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 떠난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합니다 다시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자기가 죽는 것을 체험하여야 합니다. 내가 죽지 못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감격스러운 죽음의 감사와 영적 힘을 얻어지면서 죽는 체험과 사는 체험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때서야 사도 바울은 신앙고백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정말 복음의 사람은 자기가 철저히 죽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서야 참 자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버릴 것 철저히 버린 사람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닥치자 예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는 맹세까지 합니다 아직도 덜 죽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적으로 목숨을 바치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형식적으로 또 법적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세례교인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철저히 죽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사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는 것이고 또 복음의 확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거기에 계십니다 내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에 있어서 항상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저희들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지역이 흑암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승리하는 가정과 지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시고 나를 구원하신 자였다는 이 비밀을 마음 속 깊이 깊이 간직할수 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아멘